디지털 '고려대장경 2000' 시작에서 회향까지

7년-80억 투입 불사 내용입력 꼬박 1년 1백여명 작업 동참 후원자 2만명 '큰 힘'

표점작업 '현재 진행'

팔만대장경의 5천만여 한자를 수록한 디지털 대장경 '고려대장경 2000'이 완성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93년 대장경 전산화의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를 찾자며 시작했던 '전산화 불사'가 회향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에는 고려인의 불심과 당대의 과학기술이 총체적으로 투영되어 있던 터라, 이를 CD롬으로 만들어 내는 일 역시 그만큼의 불심과 과학기술을 쏟아야 했다. 교수, 스님,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등 1백여 명이 입력·교정·교감하고 이체자(異體字)를 찾고 해제를 만들고 새로운 폰트(컴퓨터용 글자)를 만드는 일을 7년 간 해왔다.

대장경 전체 내용을 입력하는 데만 꼬박 1년. 다시 입력된 글자를 경판 필름과 일일이 대조해 오·탈자를 찾는 데 10여 개월. 입력·교정·교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완성된 교정본을 다시 읽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원판을 찾아가며 대조하기를 6차례나 반복했다.

연구소의 전산화는 의외로 교계 안팎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타종교인까지 나서 후원자를 자처했고, 종단이나 정부 등 각계의 후원도 답지했다. 이 중에서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2만여 명에 이르는 후원불자들이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2000'을 내놓기까지 10여 년 간 80여 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50여 원은 후원불자들의 원력이다.

이에 힘입어 발간된 '고려대장경 2000'은 신수대장경이나 불광대장경을 제치고 '최초의 한역대장경 전산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전자 결집이자 한역대장경의 전산화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벌써부터 "풍부한 철학적 정보를 가진 디지털 대장경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인문학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르기까지, 호의적인 반응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2000'에는 일자(一字)·용어·색인·목록 등 4종의 '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1천514종의 경전을 해설한 '해제본(本)'과 이체자 2만9천478자를 수록한 '이체자전', '불교용어 사전', '유니코드 텍스트본'까지 제공하고 있어, 교계 안팎의 열띤 반응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다.

이체자전은 어느 사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말 묶음이다. 대장경을 텍스트로 삼은 학자라면 웬만한 한문자전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체자전의 완성은 이번 작업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체자란 말 그대로 '몸이 다른 글자' 즉 동음·동의어이지만 글자의 모양(形)이 다른 것을 말한다.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뚫을 착(鑿)' 자로, 무려 65종의 변형된 글자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2000' 발간에 이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7년 간 미루어 왔던 '표점작업'이 그것이다. 한학의 대가라 하더라도 고려대장경과 같은 전적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독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 문장씩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될 표점을 디지털 대장경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경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현재 연구소는 실상사 화엄학림과 함께 자체적인 표점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01년 하반기에 공개, 학계의 검증 과정을 밟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또 한번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려대장경 2000'.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7년간 진행한 대장경 전산화의 결실.

경주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망 밝다

불교 문화의 보고인 '경주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등록 여부가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차주상보〉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록을 권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등록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학술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본회의는 의장단 회의에서 권고한 안건을 수용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 강경환 사무관은 "이제까지 우리가 등록을 신청했던 5건의 문화유산이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며 "호주 케언즈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불교 문화의 가치와 그 예술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다는 의미 이외에도 과학적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차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황룡사지(사적 제6호), 분황사 석탑(국보 제30호),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보물 제136호), 남산리 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배리 석불입상(보물 제63호),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 제199호) 등 30여 개의 불교 문화재들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현재 1백18개국 6백30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등 5건이 등록돼 있다.

오종욱 기자

원효창건 운흥사지 내년까지 발굴조사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운흥사의 복원 및 정비를 위한 학술·발굴조사가 12월 초순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16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운흥사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2001년 상반기까지 경상북도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218 일대 절터의 면적과 구조, 건물 윤곽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발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절의 복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흥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했고, 조선시대에는 경전을 간행했던 절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물은 없고 이름 모를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 2기만이 절터 주변에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불교학회 12월 2일 학술발표

한국불교학회(회장 목정배)는 12월 2일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4회 추계 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쯔까모또 게이쇼(동북대·일본) 명예교수 등의 특별 강연에 이어 불교교학Ⅰ·불교교학Ⅱ·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등 3분과로 진행된다. 불교교학Ⅰ 분과에서는 '백제 현광의 교화행에 대한 연구'(이기운) 등 6편, 불교교학Ⅱ에서는 '아비달마불교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시론'(권오민), '초기불교의 연기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내재성'(대원스님) 등 5편,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분과에서는 '도생의 이(理) 개념에 반영된 현각사상'(차차석), '〈삼국유사〉의 연기사관'(고영섭) 등 5편이 발표된다. (02)2260-3121

"CD 15장에 대장경 담았어요"

인터뷰 고려대장경硏 소장 종림스님

"도반들은 경전이나 입력하는 하찮은 일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장경 전산화는 미래의 불교학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일입니다. 2만여 명의 불자들이 후원자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지요."

민족의 유산 팔만대장경을 15장의 CD에 담아낸 종림 스님. 대장경 전산화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7년 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이끌어온 스님에게 '고려대장경 2000'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제부터 '활용'이 문제

— 고려대장경 2000의 의미는.

▲팔만대장경은 1251년 완성된 이후 동북아 불교의 표준 장경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적어도 활자본 신수대장경이 출판되기까지는 말이죠. 고려대장경 2000의 완성을 계기로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산화에서는 먼저 개발한 쪽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데, 고려대장경 2000은 세계 최초 한역대장경 전산본입니다. 신수대장경에 대한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대만의 CBETA(중화전자불전연구소)에서는 우리의 전산본을 저본으로 작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동북아 대장경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지요.

— 대장경 전산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86년도에 해인사도서관장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개인컴퓨터를 활용해 도서목록을 입력하면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반도서관조차 컴퓨터가 없었던 터라 단지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92년 혜묵 스님을 만나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4년 뒤에 삼성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장경 전산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전산화 과정에서 학계의 지원은.

▲불교학계의 관심은 예상 밖으로 적었습니다. 그 분들은 기존의 고려대장경 인경본이나 신수대장경에 더 익숙해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만들고 싶었던 한글과 한역경전을 함께 볼 수 있고 표점이 더해진 전산본을 만들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활용'의 문제입니다. 대장경의 대중화를 이루고 말 그대로 '대장경학'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불교학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에서 이러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한편 '다언어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교학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국내 전산화의 방향은.

▲대장경 전산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는 무엇보다도 통합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 뛰어든 학자들이 여러 언어로 쓰여진 경전을 동시에 열람하고 비교·연구할 수 있게 하는 '다언어 대장경'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환경을 위한 일정한 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문의 경우 SML(표준표기언어)라는 규칙을 만들어 통일되고 있지만, 한역의 경우 이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역대장경을 단락이나 문장부호를 사용해 의미별로 나누는 게 급선무입니다. 교계에서는 한글과 한문장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전산본으로 요구하는 데, 이런 규칙 마련이 선결 과제입니다.

불교학자들 관심 절실

—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향후 계획은

▲대장경 전산화의 국제 협의체인 EBTI는 축소될 것입니다. 당초 협의체는 대장경 전산화 관련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결성된 것인데, 현재 경전 전산화의 가장 핵심이었던 언어 구현 방식이 '유니코드'로 확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산화 형식도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EBTI 설립 취지가 희석되고 있으니, 그 역할 또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전산화에 쏟는 노력보다는 이들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전자문화지도' 관련 국제기구인 'ECAI'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또한 불교학의 자료에 머물러 있는 고려대장경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㉙ 환경의 해인사·용천사 편액

◇합천 해인사 '경학원' 편액

◇청도 용천사 '범종각' 편액.

환경 효동(幻鏡 曉東·1887~1983)은 경상남도 합천 출생으로, 13세 되던 1899년에 해인사 백련암(白蓮庵)에서 연응(蓮應)을 은사로 출가하여, 1902년에 사미계, 1908년에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주로 가야산에 머물며 선리참구와 불교 포교에 힘썼으며, 해인사 교무와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은 1919년 용성(龍城), 만해(萬海) 등을 만나 탑골공원에서의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1929년 홍제암(弘濟庵)에 머물 당시엔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의 시조 '백로가'를 지어, 유포한 죄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환경은 어려서부터 사서(四書)를 배워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평생 서도에 정진하며 붓을 놓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로부터 꿈에 붓을 얻고 뜻한 바 있어 글씨 쓰는 것을 포교의 일환으로 삼았다고 한다. 환경은 그의 성품만큼이나 준건한 행서를 잘 썼는데, 합천 해인사 〈경학원〉, 〈선불장〉, 〈수월문〉, 〈금선암〉, 〈죽림선원〉, 청도 용천사 〈범종각〉, 거창 송계사 〈극락보전〉, 〈육화문〉, 〈덕유산송계사〉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해인사 '경학원'

호방하게 쓴 선필행서

용천사 '범종각'

97세때 썼지만 힘차

합천 해인사 〈경학원〉 편액에는 '해방후이년 병술지추 사문 환경(解放後二年 丙戌之秋 沙門 幻鏡)'이라는 관지가 있다. 지금은 승가대학 도서관으로 쓰이는 경학원은 본래 왕실의 안녕을 비는 '경흥전'이었던 것을 1946년 해인사 주지를 맡은 환경이 전각의 명칭과 편액을 바꾼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호방하게 써 내린 선필 행서이며, 관지에 '해방후이년'이라 써넣은 것에서 독립에 대한 그의 남다른 감회를 엿볼 수 있다.

청도 용천사 〈범종각〉 편액에는 '구십칠세 효동 임환경(九十七歲 曉東 林幻鏡)'이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환경이 97세로 입적하던 해인 1983년 절에 종각을 새로 건립하면서 쓴 것이다. 함께 걸려있는 범종각 주련도 그의 글씨인데, 환경의 글씨는 사찰의 편액보다는 주련으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편액의 글씨는 노경의 글씨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젊은이 글씨 못지 않은 기상을 지녔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대형 건물터들이 중첩되어 있는 실상사 제12호 건물터 모습.

실상사서 대형건물터 발견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1일 전북 남원 실상사 발굴조사에서 100평 남짓한 대형 건물 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해 온 연구소에 따르면, '제12호'라고 이름 붙인 건물 터 지층에서 동서 3칸, 남북 5칸 이상의 남북 장방형으로 전체 규모가 동서 11m, 남북 26m에 달하는 대형 건물 터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대형 건물 터 바닥과 바깥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생각되는 암·수막새 기와와 청자조각, 중국 백자조각 등이 출토돼 건물터 축조시기를 추정케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상사 3층 석탑 중 동쪽 탑의 서남쪽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석탑 터가 발견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곳에 세워졌을 석탑은 가로 6m20㎝, 세로 5m20㎝, 깊이 75㎝의 정사각형으로 땅을 파내고 평평한 돌을 깐 다음 갈색사질 점토를 판축 기법으로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조성된 추정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최맹식 소장은 "이외에도 회랑 터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 터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실상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건물 터와 석탑 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남녀평등은 오늘의 깨달음"

"경전 여성관 재해석" 김호성 교수 주장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평등 사상이 있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만, 정작 〈사분률〉이나 〈법화경〉 등의 경전에는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김호성(사진·동국대) 교수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에 여성관과 같은 현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적 여성관은 경전에 대한 현대적 이해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김 교수는 〈수관 이범세 거사 고희 논총〉에 기고한 '불교의 여성관 정립을 위한 해석학적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부처님의 여성관을 밝히는 것보다는 경전에 나타난 여성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는 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교계 여성주의 학자들의 논지를 환기시켰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는 과거완료형이지만, 그 깨달음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대화·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완료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시대와 사회의 깨달음이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불교 여성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차별적 여성관은 인도 사회의 깨달음이라면 여성의 평등은 오늘날의 깨달음"이라며 "경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차별적 여성관은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며, 다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비평·극복해 가야할지 고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우선 경전의 내용에서 여성 평등을 다루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오늘날 불교해석학의 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불교 경전의 구절에서 그 방법론을 찾은 것이다. 요의경이란 '여성관'과 같은 특정한 사상의 본질을 밝힌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을 뜻한다.

현대적인 불교의 여성관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일차 사료는 경전인데, 동일한 경전 속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어, 요의경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유마경〉과 〈승망경〉에 나타난 여성관을 분석한 김 교수는 "경전은 열린 텍스트인 만큼 '이해'나 '용납'이라는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경전의 여성 차별을 비판·극복해 가는 미래지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